

“새로운 숲을 만나다”시리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도시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크로아티아(Croatia)는 남유럽 발칸반도 서북쪽에 있는 면적 5.6만km², 인구 380만 명, 1991년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로 아드리아해를 품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중세 성벽 도시로 유명하다. 동쪽으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쪽으로 아드리아해, 북쪽으로는 슬로베니아·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전체 국토의 53%가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이다.

저지대의 대부분은 크로아티아의 북부 지방에 있으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디나르알프스산맥(Dinaric Alps)으로 여기에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높은 디나라산(Dinara, 해발 1,831m) 있다.

크로아티아 숲 면적은 193만ha로 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침엽수림 25%, 활엽수림 75%이며, 주수종인 너도밤나무 47%, 참나무(Qiercus robur, Q. petraea) 20%를 차지한다.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전나무는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어나무, 단풍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Zagreb)는 크로아티아의 북서쪽, 다뉴브강의 지류인 사바 강변에 있는 인구 77만명, 면적 641 km²의 크로아티아 최대도시다. 자그레브 대성당, 성 마르크 성당, 그라데츠 마을(Gradec), 반 엘라치치 광장(Trg bana Josipa Jelačića) 등이 유명하다.

사진 1 = 자그레브 대성당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자그레브 대성당은 1217년에 세워졌으며 성당의 상징인 108m 높이의 두 첨탑은 랜드마크이다. 성 마르크 성당은 13세기에 건립이 되어 1880년 대대적인 보수 과정에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타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라데츠 마을(Gradec)은 자그레브 구시가지(상부 도시, Gornji Grad)의 핵심을 이루는 중세 요새 마을로 과거 상인과 장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현재는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자그레브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시내 중심과 외곽에 산재해 있는데 이 중에 시내 중심에 있는 즌린 예비츠 공원(Zrinjevac Park), 자그레브 대성당 옆에 있는 리브냐크 공원(Park Ribnjak) 그리고 외곽에 위치한 막시미르 공원(Maksimir Park) 등이 유명하다.

자그레브 중심부에 위치한 즌린 예비츠 공원은 도시의 대표적인 녹지 축인 '레누치 말굽(Lenuci's Horseshoe)'의 시작점이자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면적은 12,540m²로 1873년에 공식적으로 일반에 개방이 되었다. 수령 130년이 넘는 200그루 이상의 거대한 양버즘나무가 공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공원 내에 음악 정자, 기상 관측 기둥,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1878년에 지어진 분수는 생 긴 모양 때문에 버섯(The Mushroom)이라고도 한다.

리브냐크 공원은 자그레브 대성당 바로 뒤편에 있는 대표적인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면적이 4.67ha로 리브냐크(Ribnjak)라는 단어는 크로아티아어로 양어장(Fishpond)을 뜻하는데, 19세기까지 이곳에 양어장들이 있었다.

1830년에 영국식 정원 스타일로 정비되며 대중적인 공원으로 개장된 공원은 현재 건축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단풍나무와 관상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단풍나무류와 물푸레나무가 가장 많고 목련, 미국풍나무, 아틀라스시다, 주목 등 조경적 가치가 높은 도입종들이 식재되어 있다.

자그레브 대성당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막시미르 공원은 자그레브 센트럴 파크라고 할 정도로 자그레브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면적은 316ha로 숲, 초원 그리고 다섯 개의 인공 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 120m~167m 사이에 있다.

막시미르 공원은 1787년에 조성되어 1794년에 정식 개장했으며, 영국의 풍경식 정원 스타일로 막시밀리안 브르호바츠 주교가 조성한 공원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크로아티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자그레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 내에 자그레브 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다. 막시미르 공원은 서어나무와 참나무로 이루어진 천연활엽수 혼효림을 개간하여 조성되었다.

도심에서 전차나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막시미르 공원에 도착하는데, 흰색 정문을 지나 일자로 길게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길 좌우로 커다란 참나무(Quercus robur)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 2 = 성 마르크 성당



사진 3 = 반 엘라치치 광장의 동상



사진 4 = 즈린 예비츠 공원 분수와 양버즘나무

길 왼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수고가 20~30m가 되는 참나무 대경목이 단목이나 3~4그루가 함께 서있는데 커다란 참나무 주변으로는 서어나무와 너도밤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어 숲속이 짙은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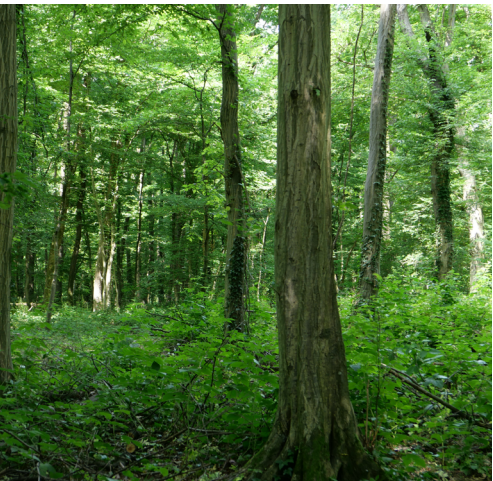
참나무 숲속으로 난 길을 가다 보면 마치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울창한 숲속으로 더 들어가면 앞이 흰히 트인 초원이 나오는데 잔디밭 주변으로는 커다란 참나무와 서어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다.

또한 크로아티아 왕국 1000주년을 기념하여 1925년에 조성된 인공 언덕인 모길라 기념비가 서있다. 특히 초원 중간에는 막시미르를 상징하는 공원에서 가장 수령이 많은 수령 600년, 수고 17m의 데덱 (Dedek, 할아버지) 참나무가 서 있는데 2026년 봄에 폭풍으로 쓰러져 지금은 사라져 아쉬움을 남기지만, 후계 묘목을 공원에 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5 = 리브냐크 공원 전경

사진 6 = 막시미르 공원 입구 전경
사진 7 = 서어나무·참나무 혼효림
사진 8 = 폭풍에 쓰러지기 전 데텍(Dedek, 할아버지) 참나무



초원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면적 2ha, 깊이 4m의 막시미르 3번째 인공 호수가 나타나는데, 참나무, 서어나무 등 활엽수로 가득 찬 숲이 수면으로 반사된 모습은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3번째 호수를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2번째 호수가 보이는데 수변부에 가지를 늘이고 서있는 버드나무가 인상적이다.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울창한 참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나무 노령목과 서어나무가 경쟁을 하며 같이 자라고 있고 일부 공간에는 수피가 매끈한 너도밤나무가 일부 자라고 있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은 마치 초록 터널처럼 보이고, 높이와 굵기가 다양한 여러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는 숲의 모습은 초록색 궁전처럼 보인다.

사진 9 = 모길라 기념비 전경
사진 10 = 3번째 호수의 활엽수 숲
사진 11 = 울창한 서어나무 숲



사진 12 = 2번째 호수 버드나무

안으로 들어 갈수록 참나무와 서어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울창한 활엽수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나무 수령 100년이 넘고 굵기도 한 아름이 넘는 노령대경목이 자라고 있어 막시미르 공원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활엽수 숲을 지나 다시 입구 쪽으로 나오다 보면 수고 3~5m의 독일가문비나무 숲이 나타난다.

산책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숲에는 수고 20m가 넘는 커다란 독일가문비나무가 단목으로 몇 그루 서있는데 이 숲은 가뭄과 병해충 피해를 받아 2012년 부터 새로 식재를 한 숲으로 공원 내에 유일한 독일가문비나무숲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14 = 독일가문비나무 숲

사진 15 = 호수 수면에 걸친 줄기 위의 거북이



사진 13 = 초록 터널 숲길

공원 입구 쪽 첫 번째 호수 쪽으로는 피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무리로 자라고 있다. 호수 수면에 걸친 나무줄기에는 자그마한 거북이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특이해 보이는데 이 거북은 자생종이 아니라 애완용 거북이를 이곳에 풀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자그레브에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규모가 크고 숲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체험이 가능한 막시미르 공원은 도시숲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이루어진 노령 참나무 숲은 그 생태적적 가치가 높고, 이외에도 다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있고, 동물원까지 있는 막시미르 공원은 크로아티아를 대표한 도시숲이다.

이외에도 자그레브의 녹지 축을 이루고 양버즘나무 둘러싸인 즈린 예비츠 공원 그리고 대성당 옆에 있는 리브냐크 공원은 도심의 중요한 녹색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